

한국의 근대 : 개항~일제강점기

1. 개항기 : 1876년 강화도조약~한일병합이전
2. 일제강점기 (1910.8~1945년 식민지해방 이전)

근대1 : 개항기

(1876~1910년 한일병합 전)

1. 개항 , 열강의 침탈
2. 개화정책
3. 일제의 국권 침탈 과정

19세기 제국주의 열강의 동아시아 침략

-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은 1840년 영국과 중국의 제1차 아편전쟁을 시작으로 본격화.
- 미국은 1853년 일본을 위협하여 다음해 1854년 미일화친조약을 체결, 일본의 문호 개방시킴. 일본은 1868년 메이지유신을 통해 근대화를 도모.
- 비슷한 시기 조선도 이양선의 출몰과 함께 문화 개방의 압력을 받는 등 위기 상황.
- 조선은 1863년 철종이 죽고 12세의 고종이 새로 왕이 되면서 그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장악. 대외적으로 쇄국정책과 대내적으로는 왕권강화를 위한 과감한 개혁 추진.

서구와 만나기 이전 조선의 모습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관이 깊게 존재 + 천주교와 동학의 유행

- 중국을 통해 서학을 접하면서 서구 과학에 관심을 갖는 세력 성장.
- 명이 멸망한 후 유교문화의 진정한 주체가 조선이라는 자부심에 입각(소중화의식)하여 더욱더 유교문화에 대한 확신을 굳히는 보수세력 또한 성장.
- 전통사유 계승의 논리(소중화의식)가 타자에 대한 배타적 의식과 국사의식으로 강조.
- 1900년대까지 유교적 사유방식은 여전히 조선 지식인들의 한 흐름을 대변하는 중요한 논리.
- 천주교의 확산과 박해 : 정권에 참여하지 못한 양반과 중인 중심에서 서민층과 여성에게 확대. 유교적 제사 의식 거부, 인간 평등과 내세 사상이 원인이 되어 박해.
- **동학의 성행** : 사회 혼란, 기성종교에 대한 불만, 서양세력의 침략 위협으로 위기감 고조. 최제우가 유-불-선 및 민간신앙을 결합하여 창시(1860). 동학은 신앙운동이면서 사회 운동의 성격을 지님. 동학은 인내천, 현세구복사상. 후천개벽사상, 보국안민사상을 바탕으로 농촌사회에 급속히 확산.
- 동학이 확산되자 정부에서 교조 최제우를 처형(1864)하고 동학 탄압.

양요 이후 조선 : 개항에 대한 필요성 대두

- 병인양요(1866)와 신미양요(1871)는 조선에게 서양의 무력적 우위를 실감하게 함. 조선인에게 새로운 물질문명을 접하는 계기 부여.
- 1860년 영불연합군의 북경 점령 사건은 조선으로 하여금 대외적 위기감을 고조시킴.
=>대외통상을 주장하는 조선 학자들의 인식전환의 중요한 계기로 작용. 대표적인 사례로서 박규수, 1866년 평안도 관찰사로 부임. 평양에서 미국 범선 2차례 접함. 제너럴 셔먼호 사건(1866)과 세년도어호 사건. 서양 열강의 무력적 우위에 대해 심각한 위기의식 느낌. 서구 열강 전체에 대한 반감이 아닌 미국과 통상조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확산. 중국 위원이 쓴 『해국도지』 등을 통해 서양 열강의 침략에 대한 방비책을 연구하고 개항론 주장.

『해국도지』: 세계 각국의 지리, 역사 소개. 洋夷를 막기 위해 서양 문물 수용 주장.

- **개항론의 대두와 개항**: 개항론은 1874년 고종의 친정[계유정변] 이후 대일외교의 변화로 나타났으며 1875년 운요호사건으로 1876년 조일수호조규의 체결을 통해 개항.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과 운요호 사건

- 메이지유신을 계기로 일본에서는 도쿠가와 막부체제가 무너지고 천황중심의 정치체제로 변화.
- 이전 일본측 외교 당사자는 막부의 우두머리인 쇼군(將軍). 조선과 일본 쇼군은 대등한 지위에서 외교교섭. 메이지유신 이후 천황 중심의 정치체제가 성립하면서 양국간 외교 형식에 문제 발생.
- 메이지유신 직후 일본은 자국의 정치변화를 알리는 문서를 대마도를 통해 조선에 보내옴->이 문서를 받아든 동래부는 문서가 천황 명의 등 전통적인 외교 형식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접수 거부->양국간 심각한 외교적 갈등 발생->일본에서는 무력을 동원해 강제로 조선의 문화를 개방하려는 정한론(征韓論) 부상=>운요호 사건의 배경.
- 이 무렵 대외강경책을 펴던 흥선대원군 실각하면서 대외정책 변화 조짐. 고종은 박정양을 동래부에 암행어사로 파견해 그간 일본과의 외교교섭 과정 조사, 1875년 2월 일본의 외교문서 접수를 주장=>대신들 반대.
- 일본은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조선을 개방시키기 위해 무력시위 감행. 1875년 8월 22일 일본의 군함 운요호가 강화도 앞 난지도에 도착. 강화수로에 접근하자 초지진에서는 정지 명령, 불응하자 포격.
- 운요호는 보복 포격, 영종도에 상륙해 방화, 살육 후 퇴각. 운요호가 무력시위를 하면서 조선에 통상조약을 맺을 것을 강요, 다음해 1876년 조일수호조규(강화도 조약) 체결.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

- ‘강화도조약’, ‘병자(丙子)수호조약’ 으로 명칭. 운요호 사건의 결과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면서 불평등 조약. 뒤이어 체결된 조약부록, 통상장정에는 관세와 항세에 대한 조항이 전혀 없어 일본 상품에 대한 세금 부과되지 않음.
- 주요 내용 : 3개의 항구(제물포, 부산, 원산) 개항. 일본인 거주지 허용. 공사관 설치. 치외법권 인정. 해안측량권 인정.
- 개항장에는 일본인 거류지 생김. 개항장에서 일어난 일본인 범죄를 일본 법률로 다스리도록 하는 치외법권 인정, 그곳에서 일본화폐 자유롭게 유통, 조선의 쌀을 비롯한 식량이 일본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없었음. 이후 미국을 비롯한,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의 서국 열강과도 불평등한 통상조약 체결.
- 조선은 개항 이래 자신의 선택 여하와 상관없이 자본주의 세계에 편입.

'강화도 조약'과 일본의 속셈

조선국은 자주국이며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조선과 청의 종속관계를 약화시켜 청이 일본의 조선 침략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려고
경기, 충청, 전라, 경상, 함경 5도의 바닷가 중 통상에 편리한 항구 2개소를 앞으로 20개월 내에 개항한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조선국 해안을 일본국의 항해자가 자유로이 측량하도록 허가한다.	군사적 침략을 가능하게 하려고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 항구에 머무르는 동안 죄를 범한 것이 조선국 인민에 관계되는 사건일 때에는 일본국 법에 의거하여 모두 일본 관원이 심판한다.	조선의 사법권 침해=> 강화도조약 불평등성의 대표적인 예

‘조일수호조규’ 체결 후 조선

- 치외법권, 무관세조항 등 조선에 불리한 불평등 조약이지만 일본과 대등한 국가 관계 수립 도모. 표면적으로는 일본에게만 한정된 조약이라고 명시했으나 이후 서구 근대사회와의 개항의 단서.
- 강화도조약 이후 조선은 일본에 수신사를 파견하여 일본의 근대화를 목격하고 조선의 근대화정책 추진.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김윤식, 어윤중 등이 정계로 대거 입문하여 고종을 보좌하여 개화정책 추진. 1880년대 조선의 개화정책은 고종과 개화파가 주도. 1884년 갑신정변까지 왕성하게 전개. 외교, 통상, 군사 업무를 담당하는 개화추진 기구 설치.
- 개화사상은 유교적 정통론을 주장하는 위정척사사상과 크게 대립 .
- 개항 후 개화정책은 봉건적 토지제도나 신분제도와 같은 사회적 틀을 그대로 유지하는 제한적인 것, 농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함. 양반 유생들은 개화정책이 봉건적 사회질서를 와해시킬 것이라며 반대. 특히 군인층의 격렬한 반발로 임오군란 초래(1882).

개화, 개혁정책

- 근대적 행정기구 통리기무아문 설치(1880.12). 신식군대 별기군 창설.
- 청과 일본에 사절단 파견. *일본에 신사유람단(1881.1), 청에 영선사(1881.7) 파견.
 - 박정양, 홍영식, 어윤중 등의 신사유람단 파견.
 - 영선사 김윤식이 유학생 38명을 이끌고 중국에 감. 별기군 신식군대 창설
- 1882: 조미통상조약, 조영조약, 조독조약체결, 조청수륙무역장정체결
- 1883: 해관설치, 최초의 근대학교인 동문학 설립, 화륜선 구입, 최초의 근대적 신문 한성순보 발간, 근대우편제도 창설, 우정국 설치, 도로를 관리하는 치도국의 설치와 서울시내 도로 확장 정리, 서울 내 경찰제도 창설, 복식제도 개혁, 견미사절 파견 (민영익 홍영식 등), 서북경략사 어윤중, 동남제도 개척사 및 포경사 김옥균 파견
- 1882~84: 해외유학 파견(유길준, 윤치호 등), 26개의 근대적 상공업 기업체 설립 (연초, 양조 등)
- 1884: 농무목축시험장 설치

임오군란(1882년 6월 5일)

- 개화정책의 추진으로 신식군대인 별기군 창설. 별기군에 비해 턱없이 낮은 대우를 받던 구식군인들 사이에서 정부에 대한 불만 고조.
- 13개월간 봉급을 받지 못한 구식군대 무위영, 장어영의 군인들이 1달분의 급료를 받았는데, 그마저 선혜청 창고지기의 농간으로 양이 부족하고, 지급된 쌀에 겨와 모래가 섞여 있자 이에 분노해 선혜청 당상 민겸호의 집으로 몰려가 집을 부수고 폭동을 일으킴. 개항 이후 곡물 가격의 상승으로 고통받던 도시 하층민들도 가담.
- 민겸호 등 개화파 관료와 민씨 일파의 집을 부수고 일본 공사관, 별기군 습격하여 일본인을 죽이고 왕비를 제거하고자 궁으로 침입했으나 왕비는 이미 궁을 빠져나간 상태=>사태 수습을 위해 흥선대원군 집권. 이후 민씨 일파의 요청으로 청이 군대 파견, 대원군을 청으로 압송=> 민씨 일파가 정권 장악.
- 청은 무력으로 군란을 진압한 후 조선을 실질적인 속국으로 삼고자 하는 속방강화정책으로 전환. 청은 이홍장 휘하의 마건충과 뮐렌도르프를 조선의 정치와 외교고문으로 파견.
- 청 군대 주둔, 내정간섭.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을 맺어 경제 침투 강화.
- 임오군란 후 조선과 일본간 제물포조약 체결.

임오군란 당시의 별기군



임오군란 이후 조선-청-일본

- 청은 조선에 대한 종주국으로서의 특혜를 규정하여 조선에서의 배타적 지위를 획득하고자 함.
-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1882.8.23)의 첫머리에 “이 수륙무역장정은 중국이 속방(屬邦)을 우대하는 뜻에서 상정한 것이고, 각 대등 국가간의 일체 균점(均霑)하는 예와는 다르다.”고 하여 불평등 조약임을 밝힘. 또한 청의 북양대신과 조선 국왕의 위치를 대등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조선이 청과 대등한 국가라는 것보다는 조선이 청의 속국임을 간접적으로 표현.
- 개항장에서 청나라 상인의 치외법권 인정과 조선 내륙에서의 청나라 상인들의 활동 인정 등 포함.
- 조선에 대한 청의 무역량은 해마다 늘어난 반면, 상대적으로 일본이 차지하는 무역의 비중은 감소. => **조선에서의 청과 일본의 각축은 점점 치열.**

임오군란 이후 조선-청-일본

- 장정 체결 이후 일본은 청을 가상적국으로 인식하고 해군확장에 주력. 육군도 대외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훈련.
- 임오군란 이후 청의 간섭에 불만을 품고 일본에 우호적인 김옥균 등에게 재정적인 원조를 단행하면서 한편으로는 임오군란의 배상금을 반환하는 정책으로 그들의 환심을 사고 청으로부터 조선의 독립을 권유=> 1883년 민영익, 홍영식 등이 미국시찰을 떠났을 때 조선중립론 제기.
- 청, 일 모두 조선을 자신들의 세력 하에 둬으로써 자국의 권위를 높이고자 함.
- 조선은 대외적으로 자주외교와 대내적으로 개화정책의 통일된 추진이 시급했으나 일본에 의지한 채 소수 급진개화파가 추진한 갑신정변의 **실패**로 오히려 **위기 초래.**

개화사상가들의 개혁정치론

과세의 기준을 수확량이 아닌 지가(地價)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지조의 현물납을 폐지하고 정액 금납제로 바꿨으며, 납세 의무자를 토지 소유자로 한 조치.

- 삼정의 문란을 포함한 토지개혁문제에 대하여 개화파는 해결방안으로 일본과 같은 지조(地租)개정을 역설하였고 갑신정강에도 지조개혁을 강조.
- 어윤중 : 일본의 지조개정을 높이 평가. 이는 기존의 지주제를 근간으로 하면서 단지 세제상의 개혁을 행한다는 것으로 개혁파의 권력기반이 기존의 양반관료층이라는 점, 정부 주도의 위로부터의 개혁을 고수하고자 하였다는 점과 밀접히 관련=>개화파의 한계
- 개화사상은 정치적으로 입헌군주제 지향, 경제적으로는 지주제를 옹호하여 위로부터의 부국정책을 추진하는 것.
- 개화사상가들의 개혁은 각종 기간산업을 일으키고 회사설립을 장려하여 근대화를 꾀하는 것.
- 근대화를 위한 인재교육의 방법으로 미국식의 교육 방법에 주목.
- 인재등용의 주된 기준은 능력주의로 규정, 기준만으로 개화사상가들의 개혁정치를 평가할 때는 인민평등주의의 실현의 개혁 방향.

개화사상가의 한계

- 기본적으로 개화파는 당시 서양열강이 통상을 목적으로 세계 각국과 교제한다는 낙관적 인식. 일본 메이지정부 관료의 삼엄한 약육강식 논리에 입각한 세계질서 인식과는 달리 소박하고 낙관적.
- 홍영식은 미국의 해군의 역할에 대해 상민을 보호하고 외적을 방어하는 일이라고 하여 열강의 군대의 역할도 다른 나라를 침입, 정복하는 수단이라기보다는 통상을 보조해주는 역할이라고 평가.
- 개화파가 인식한 당시의 세계질서는 각국간의 조약을 기반으로 만국공법을 준수하며 서로 통상을 전개하는 것이며 그러한 한에 있어서는 대외적 침략은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
- 박규수의 통상개국론, 예에 입각한 외교론과 일맥상통하는 주장을 보다 확대시킨 인식.

급진적 개화파의 정치적 활동

- 김옥균 : 위생, 농잠, 도로에 주목. 노동의 효율성을 기해 산업을 발달시켜야 한다고 생각. 회사 설립 주장. 김옥균의 근대화 구상의 직접적인 모델은 일본. '일본이 동양의 영국이라면 조선은 동양의 프랑스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
- 홍영식 : 부국정책의 기초로서 기기 제조, 선박, 우편, 전보 등의 개발 주장. 미국 교육 제도를 본받아 인재양성, 부국정책은 대외적으로 해외통상에 의한다고 주장.
- 김옥균은 1883 고토 쇼지로에게 서한을 보내 '조선에서 무력에 의한 정변을 단행할 때는 일본의 무사와 무기 원조가 필요하다'고 역설. 1883년 12월 조선정부에서 재정타개를 위해 당오전을 주조하고자 하는 것을 비판하고 그 보다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함으로써 재정위기를 타개할 것'을 주장. 민영익과 대립한 채로 일본으로 가서 울릉도의 삼림채벌권을 담보로 300만원 차관을 얻고자 했으나 실패.
- 일본은 1884년 5월 청불전쟁 발발하자 청국군이 조선에서 부분 철수하는 틈을 타 김옥균 등에게 접근하여 지원의사 밝힘. 김옥균은 이에 고무되어 정변 결행, 실패.

갑신정변(1884년 10월 17일)

-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서재필 등 소수 급진적 개화파가 일본과 연대하여 일으킨 정변 =>외세에 의존한 정변.
- 배경 : 청의 내정 간섭, 민씨 세력의 소극적인 개화정책 추진.
- 임오군란 수습 후 청의 내정간섭으로 개화정책은 크게 후퇴. 개화파가 주장하던 개혁이 청군을 등에 업은 민씨세력에게 번번이 거부되면서 개화파의 입지가 협소. 그러던 중 베트남에서 청과 프랑스간 전쟁이 발발하자 청군 일부 조선에서 철수. 개화파는 정세를 바꿀 수 있는 호기로 생각하고 일본군의 지원을 받아 무력으로 청군과 민씨 정권을 몰아내고 개혁 추진코자 함.

갑신정변(1884년 10월 17일)

- 과정 : 개화파는 우정국 개국을 축하하는 연회에서 정변을 일으켜 민씨 일파를 제거하고 권력 장악. 개화당 정부 수립. 그러나 서울에 남아있던 청군의 반격과 민중의 지지 미약으로 정세가 불리해지자 일본이 약속을 저버리고 철수함으로써 3일만에 실패. 일본군세가 200여인데 1500여 명의 청국군과의 충돌 결과 일본군이 퇴각하자 김옥균 등은 일본으로 망명.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강함. 정변을 주도한 개화파 관료들은 일본으로 망명. 이후 청의 내정간섭 심화.
- 결과 : 조선과 일본 한성 조약(1884. 11.24 (양력으로는 1885. 1.9), 일본에 사죄하고 배상금 지불), 청과 일본은 텐진 조약(1885, 청-일 양국 군대를 철수하고 군대 파병시 서로 통보하기로 함)→청의 내정 간섭 심화, 청일의 경제 침투 강화.

갑신정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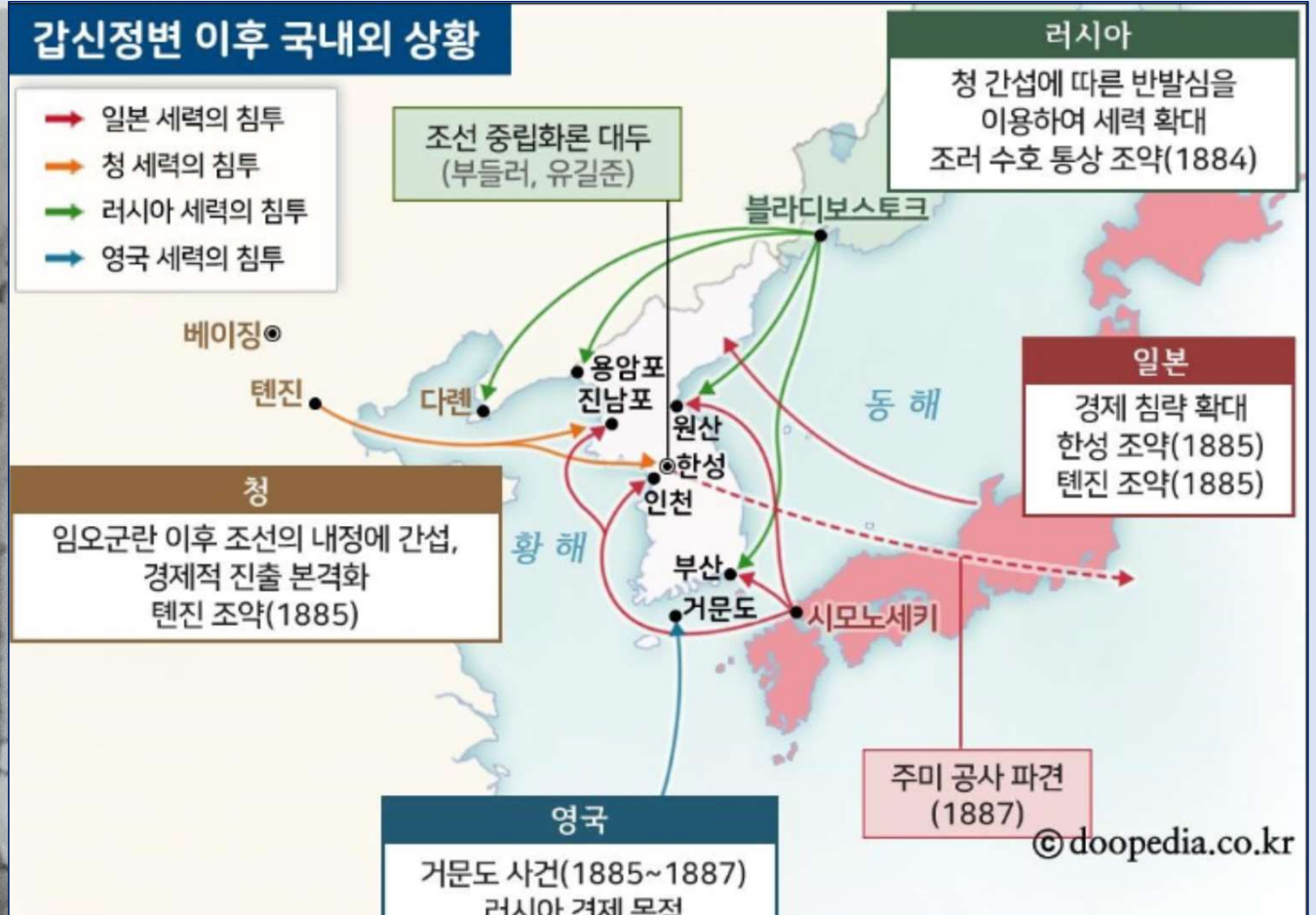


갑신정변 주동자들 : 왼쪽부터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김옥균



갑신정변 이후 국내외 상황

- 일본 세력의 침투
- 청 세력의 침투
- 러시아 세력의 침투
- 영국 세력의 침투



자료 인용(2020.5.25)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056786&cid=40942&categoryId=31778>

갑신정변 이후 국내외 상황

- 조선에 대한 열강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열강의 세력 경쟁 치열
- 갑신정변 후 청의 간섭 심화.
- 갑신정변에서 실패한 일본은 이후 조선에 경제 침략 확대.
- 청의 간섭 심화로 **청에 대한 반발심을 이용하여 러시아 세력 확대 도모.**

조러수호통상조약(1884)

- 러시아세력의 남하를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점거하는 사건 발생. (거문도 사건, 1885~1887)
- ❖ 국제적 위기 조성, 조선 종립화론 제기(독일인 부들러, 유길준)

방곡령(防穀令)

- 防穀 : 지방 장관 직권으로 천재, 병란, 그 밖의 사정으로 식량 공급 문제가 급박해지거나 쌀값 등의 등귀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 지방에서 산출된 양곡을 타지방, 타국으로 유출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
- 일본 상인들의 미곡 무역이 허용된 것은 1876년 조일규칙. 1882년 조미통상조약에서 양곡 수출을 일시 중단할 수 있는 외교적 약정체결. 이후 일본에 양곡 행정의 자주성을 확립하기 위해 방곡할 수 있는 권한을 1883년 조일통상장정에서 약정 체결.
- 조선의 지방관들은 1884년~1901사이에 전국적으로 방곡령을 27회 발동. 그 중 조선-일본간의 심각한 외교 분쟁을 초래하고 손해배상 문제까지 야기한 방곡령은 특히 1889년 5월 황해도 방곡령, 10월 함경도 방곡령과 1890년 3월 황해도 방곡령.

방곡령 사건(1889)

- 1)배경 : 갑신정변 이후 일본의 경제적 침투 심화로 농촌 경제 파탄
- 2)경과 : 함경도(10월), 황해도(5월)에서 일본으로 곡식이 유출되지 않도록 방곡령 선포
- 함경도 방곡령은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이 개정된 조일통상장정에 따라 1개월 전에 외교 담당 관청에 통고. 일본은 절차상 문제를 빌미로 관계관 처벌 요구, 방곡령 취소 강요-> 배상 청구. 4년간 절충 끝에 함경도, 황해도 방곡령에 대한 배상금으로 11만원 지불.
 - 조선에서는 쌀값 상승으로 다른 곡물 가격 및 생필품이 등귀하여 시장에서 곡물 구매로 생계를 잇던 빈농, 토지없는 농민, 도시 빈민들의 몰락과 저항 초래(활빈당).
 - 양곡의 일본 수출은 일본의 산업혁명에 필요한 식량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국내 대지주들을 살찌워 이후 일제하 지주제의 근간을 이룸.

3)결과 : 일본에 손해배상→반일 감정 고조, 정부에 대한 불신 고조

- 조병식은 1883년의 통상장정에 따라 9월 1일 외아문에 방곡령 실시 통고. 10월 1일부터 실행.
- 일본은 외아문이 그들에게 통고한 날짜가 9월 17일이었다는 점, 콩이 50년만의 큰 흉년이라는 점을 내세워 방곡령의 즉각적인 해제 요구.